

LA한국교육원, “독도 경비대를 응원합니다” 독도의 날을 맞아 뿌리교육 수업 실시

- 독도의 역사적 중요성 배우고 경비대원들에게 감사의 편지 작성
-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 다지는 특별한 수업 진행
- 학생들이 쓴 감사 편지, 독도 경비대에 우편으로 전달 예정

□ LA한국교육원(강전훈 원장)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뿌리교육 한국어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 경비대를 응원합니다”라는 편지 쓰기 수업을 10월 19일과 10월 26일 2주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도의 날: 대한제국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2000년 민간단체 독도수호대가 제정했다.

□ 이번 수업은 독도의 역사적 중요성을 배우고 독도를 지키는 경비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독도의 의미와 경비대의 역할을 배우며,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 학생들은 독도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진 후, 직접 경비대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경비대원들의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동시에, 독도 수호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작성된 편지는 독도에 있는 경비대 본부로 우편 발송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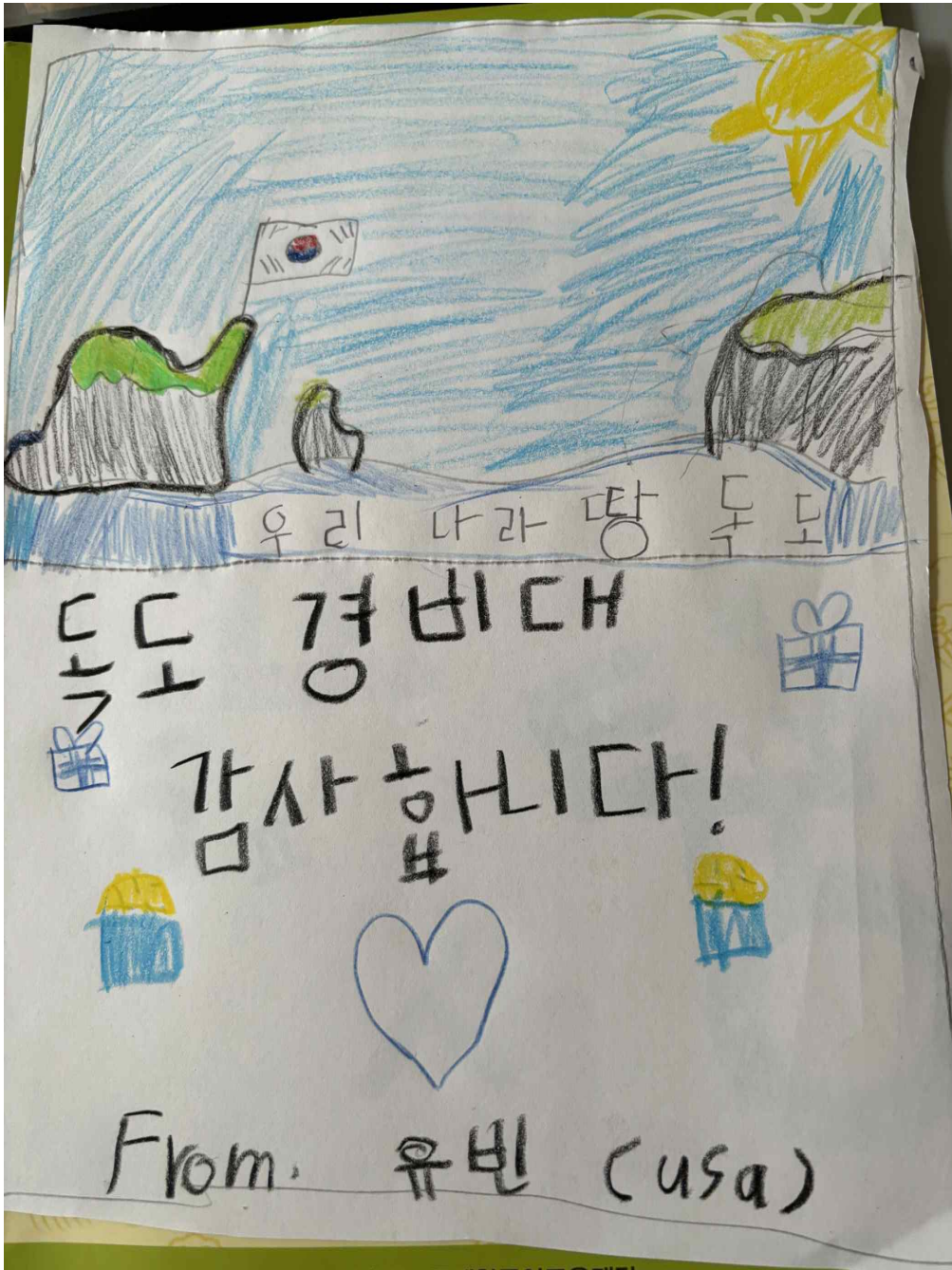
□ 이번 수업에 참여한 이서안 학생은 “독도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독도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경비대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쓴 편지가 독도로 보내진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영토를 지키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 LA한국교육원 강전훈 원장은 “이번 수업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독도 경비대원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교육원은 앞으로도 한인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고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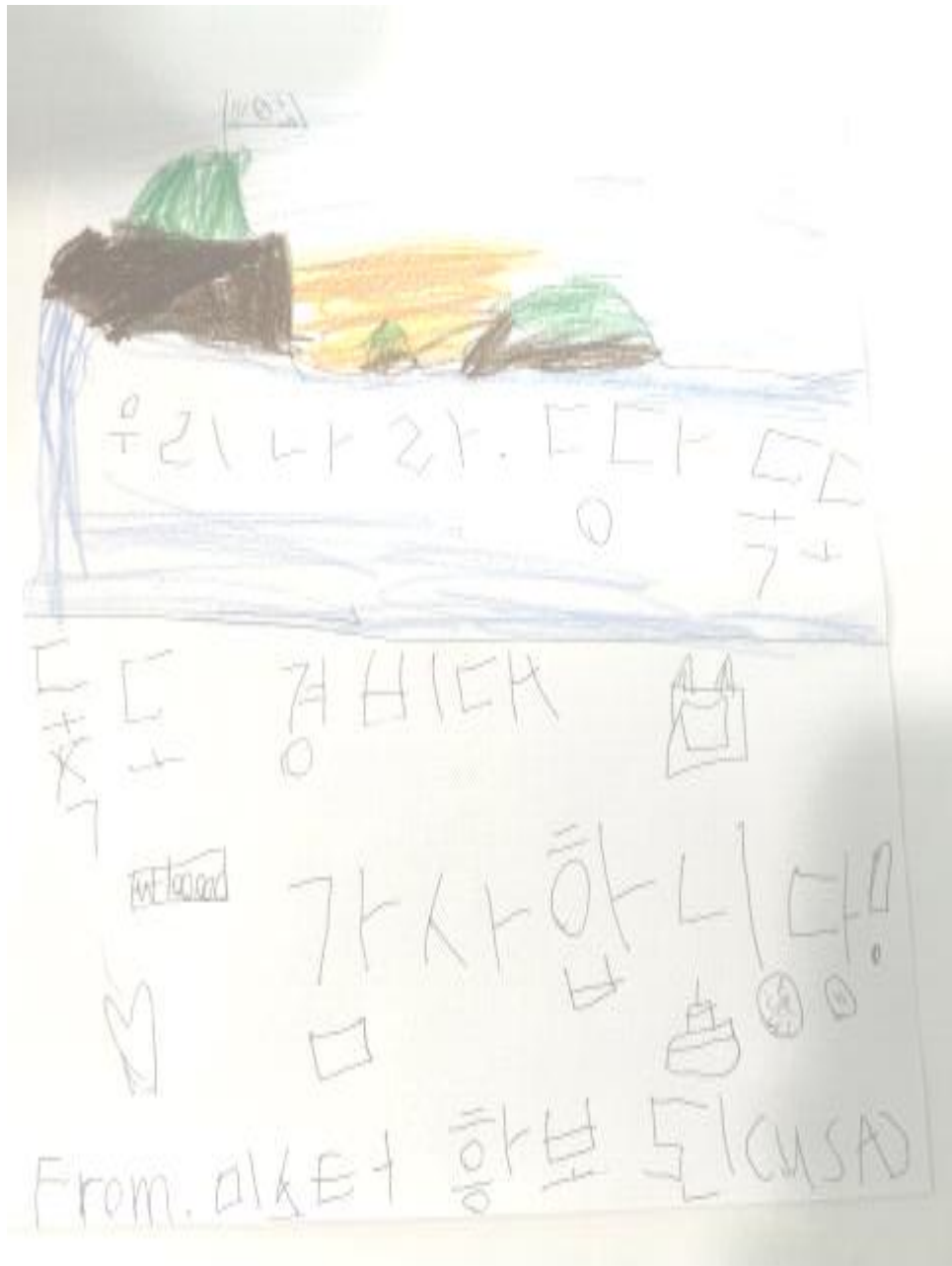
※ 관련문의 : LA한국교육원 (680 Wilshire Place #200, LA, CA 90005)
(213-386-3112) Homepage: www.kecla.org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담당자	이상범 부원장 (213-386-3112)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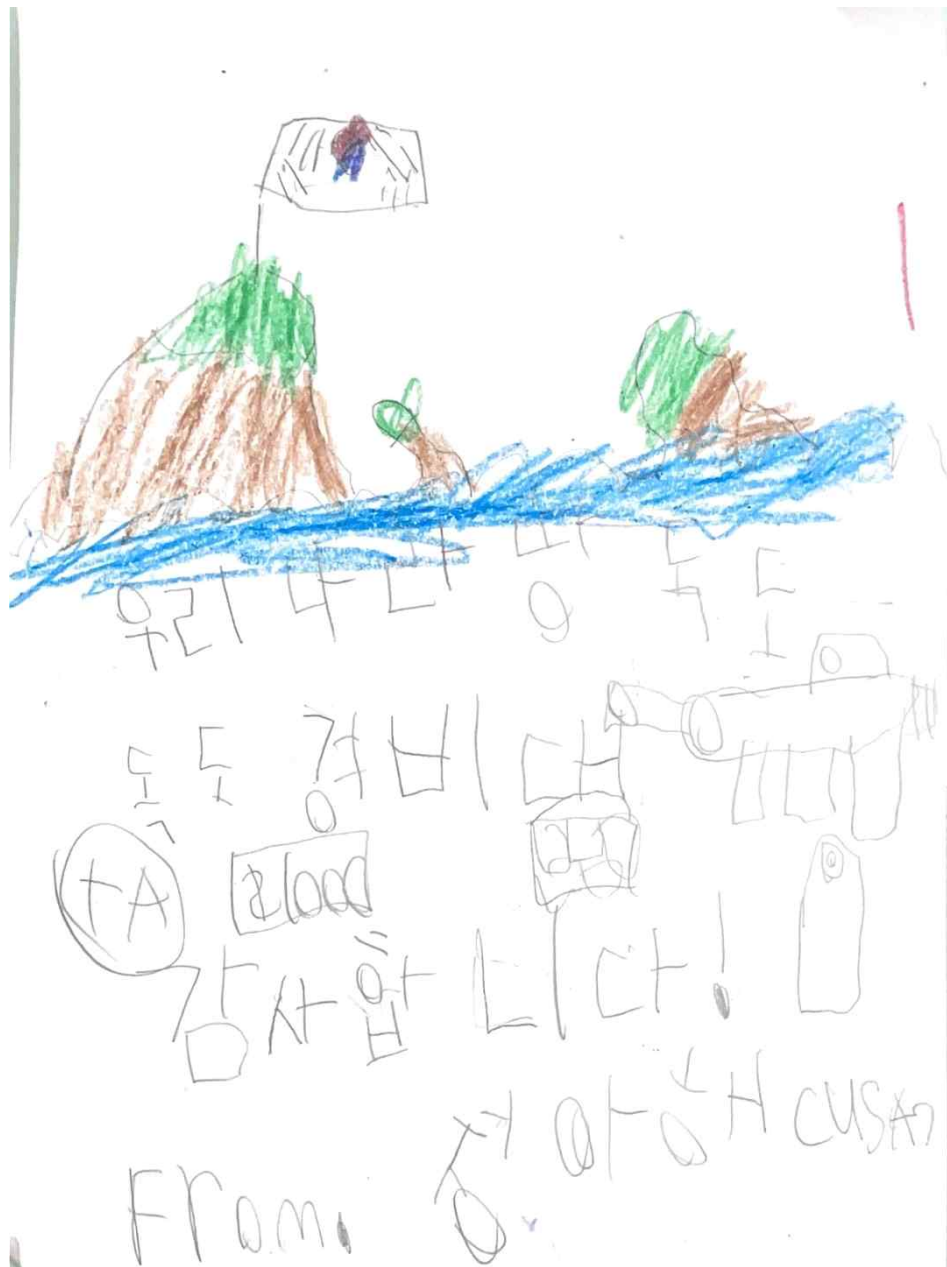
붙임 : 사진 3부 끝.



<사진 1 - 뿌리교육 한글기초(상) 유빈Low학생의 감사편지>



<사진 2 - 뿌리교육 한글기초(상) 황보민 학생의 감사편지>



<사진 3 - 뿌리교육 한글기초(상) 정Ahea학생의 감사편지>